

“문제와 공존하는 인생”

요기 1:21-22

우리는 인생에 대해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란 곧 문제 없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해 지는 것일까요? 문제없는 인생은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많은 유혹을 통해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었던 평화로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는 어김없이 온갖 죄악에 물들어 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도, 문제 없는 가정이나 개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동분서주하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 앞에 다가온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언제나 '문제'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가 없었다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쓴 연못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찾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그 문제에

초청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문제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향한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시 34:17-18)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제에 대해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 1:21-22)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고 온 몸에 병이 들어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통곡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내게 다가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받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잠 12:14)

“죽고 사는 것이 허의 힘에 달렸나니 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허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허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입술로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형식적으로, 또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를 떠올린다면, 눈 앞에 닥친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 투성이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진리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는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최근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묵상)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거나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